

# 영화 담화의 화용적 특성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

유도형

(국민대학교)

**Ryu, Do-Hyung. (2015). A Study on Memory Effects of Pragmatic Features of Dialogues in Film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3(1), 161-181. It has been getting popular to use film dialogues in the learning and teaching of English. Even though films have communicative and pragmatic features of value, it has been shown that the use of film dialogues is limited only to the teaching of linguistic knowledge such as vocabulary, grammar and useful expressions. On the contrary to conversation textbooks, film dialogues cannot be said to be different from naturally occurring dialogues.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the conversational implicature that makes film dialogues authentic and meaningful. Almost every utterance has its intended and implied meaning from what is literally said, based on the context and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interlocutors. A number of examples and case analyses are presented with conversational implicature in film dialogues. The aspects and conditions of conversational implication in films are identified and diagnosed. In addition, the concepts of promoting pragmatic competence using film dialogues are suggested.

**주제어(Key Words):** 영화의 화용적 특성(pragmatic features of films), 기억력(memory), 화용능력(pragmatic competence), 대화 함축의미(conversational implicature, implication)

## 1. 서론

영어 교수자료의 다양성은 현대의 과학기술과 결합하여 그 범위가 광대해졌다. 이런 다양성이 취사선택의 범위는 넓혔지만 교수자료의 선정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한정되어, 학습자의 입장이 아닌 교수자의 입장에서만 교재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해진 교육목표와 교과과정 속에서 중고등교육을 끝내고 올라오면 대학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접하게 되지만, 영어교육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교재라는 면에서는 외국교

제라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으며 그것도 취업을 위한 토익 시험으로 변질되며 대학입시와 유사한 연장선에 국내 학습자들은 서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학습자들은 영어교수자료로써 영화와 미국 드라마<sup>1)</sup>에 대해 열광적인 호의를 보이고 있다.

영화와 미드는 근래 영어를 학습하기 위한 최고의 교재로 학습자들 사이에 부각되었다. 현재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영화와 미드를 이용해서 영어 학습을 하는 이용자가 급증했으며, 인기 카페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40만을 넘고, 대부분이 10만을 넘는다. 이렇게 교수자들보다도 학습자들이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는 못하고, 학습자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학습에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영화가 가치 있는 언어학습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유용한 회화 표현을 익히는 정도로 한정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사설학원이나 일부 대학에서 소규모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교수자의 입장에서 영화를 교재처럼 손쉽게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용 회화 표현 정도로만 가르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영화의 활용가치를 십분 이용하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영어 학습자들에게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하며, 영화가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 방법론자들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화와 미드가 가진 화용론적 가치와 특성을 논의하고, 이런 특성이 학습 기억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영화 담화의 기억력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험 연구를 통해 비교하였다. 이는 영화를 영어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효율적인 학습전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영어 학습은 학습자가 알아서 암기하는 방식이 당연하고, 어떻게 학습자의 암기와 입력을 수월하게 도와줄 것인지가 관건이다. 영화의 담화가 가진 특성이 언어지식의 입력과 암기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알아보려고 한다.

## 2. 자연발생 대화(naturally occurring data)와 영화대화

인간의 의사소통은 말 그대로 발화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으로 특징지을 수 있고, 이런 인간의 능력을 규명하는 하나의 이론 구조가 대화 함축의미 이론(the theory of conversational implicatures)이다(Benz et al., 2013). 대화 함축의미는 광범위한 담화 맥락(discourse context)에 의존하는데(Grice, 1989), Levinson(1983, 2000)을

1) 이후 '미드'라 줄여 기재한다. 영국 드라마와 캐나다 드라마도 현재 학습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모두 포함시킨 개념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포함한 새로운 학자들(Neo-Gricean)은 함축의미를 발화의 논리 형태(logical form)에 의존해서 문장 수준(sentence level)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Chierchia(2004) 같은 학자는 등급함축(scalar implicature)에 대한 연구를 주장하기도 하고, Wilson과 Sperber(2004)는 맥락적 타당성(contextual relevance)의 개념에서 함축의미가 얻어진다는 타당성 이론(Relevance Theory)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Breheny et al.(2006)은 다양한 실험 연구를 통해 담화맥락이 함축의미의 발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하였다.

함축의미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 본 연구에서는 영화의 담화가 갖는 주요한 특징으로 함축의미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발화가 갖는 진정한 의미 즉 의도된 의미가 실제 대화에서는 자연스런 형태이고, 영화는 교재로 인공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인간의 문화가 드러난 매체이므로 실제 대화를 가장 유사하게 보여주는 즉 함축의미가 가장 잘 드러난 매체라는 논의를 하겠다.

영화를 영어 교육현장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미국에서 점차 인기를 얻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는 2000년대부터 영상영어교육학회를 주축으로 활발해졌다. 영화가 최선의 영어교육자료로 이해가능입력(comprehensible input)을 얻을 수 있고, 진정성있는 대화와 언어 자료가 풍부하며, 여러 가지 언어기능과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연구들(유영아, 2000; 이자원, 2000; 박영, 2007; 서성식, 2007)이 있었다. 또한 방법론 연구에서 말하기 능력 신장(유영아, 2007; 성지희, 2008), 듣기 능력 신장(김혜정, 2009)에서 작문 수업 활성화(장혜진, 2006; 정상욱, 2007), 독해력 신장(노운아, 2008) 같은 언어 사용기술 연구에서, 시와 문학 학습에의 적용(윤재웅, 2007; 서성식, 2009)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영화사용의 무한한 확장성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영화를 학습 도구로써 활용하는 연구들과 함께 영화 담화와 언어의 가치 자체에 대한 연구들도 간간히 진행되어 왔다. 담화와 화용론 연구에서는 만들어진 언어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찬반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만들어진 대화(script-based interactions)는 자연발생 언어자료와 같을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Burton, 1980). 그러나 언어 자료에 대한 순수 연구는 차치하고 언어 교수에 이용할 수 있는 용이성을 고려할 때, 영화의 대화 가치를 간과할 수 없다. 실제 자연발생 언어자료를 영어 교수·학습 현장에서 사용하기는 힘들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Kim과 Im(2012)은 시트콤 *Modern Family*에 드러난 화용론적 실패(pragmatic failure)를 분석하면서, 이를 학습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실제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고 전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시적 교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소연(2009)은 영화 담화가 갖는 특성을 알아내고자 학습자들을 통해 일반 회화 교재와 영화 담화와의 비교연구를 시행하였다. 일반 교재의 대화는 단어와 문법이 통제되기 때문에 학습에 있어서 더 용이하고 내용면에서 더 쉬운데도, 학습자들은 영화의 담화를 더 선호하고 영화 담화로 학습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영화의 담화는 문장 길이도 더 길며, 학습할 문법

이나 어휘양이 많았으며, 영상을 보지 않는다면 내용 이해가 어렵다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학습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영화 담화의 통일성과 결합성을 답으로 제시하고, 실제 대화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Kim(2011)은 영화의 스크립트 대화에 대화분석법(conversational analysis)을 적용하여 순차구조(sequential structure) 분석으로 영화의 대화가 자연발생 대화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제 영어 대화의 다양한 순차조직을 학습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교수 활동을 고안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였다.

Bowles(2010)는 극(play) 속의 스토리텔링을 분석하기 위해 대화분석법을 적용하면서 대화(talk)를 통해 사회세계(social world)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조망하는 것이 바로 대화분석법의 주관심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작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주는 데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작가가 창조하는 대화가 자연발생 자료로써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Herman(1995)은 극의 대화에서 대화교환(turn-taking), 조직 분석을 통해서 극중 인물의 성격과 관계 분석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대화분석법을 극의 대화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제까지의 영화 대화에 대한 분석 연구는 주로 대화분석법이나 대화교환 등의 담화 구성요소로 분석하는데 이는 형식적인 차원에서 대화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화교환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도, 인접쌍(adjacency pair), 순차구조(sequence construction), 발언권(taking the floor) 등도 마찬가지로 대화의 형식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화의 형식적 분석에서 벗어나서 내용적, 의미적 분석을 영화 대화에서 시도하고자 한다. 영화 대화가 어떤 화용적 특성을 갖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대화 함축의미의 관점에서 분석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Grice(1989)가 만들어낸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화자의 발화 속에 전제되어 있는 조건이 아니고 전달하고 싶은 심리적 의미 즉 의도한 실제 함축된 의미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영화의 대화가 현실의 대화와 다르다는 근거로, 극화된 스토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많이 언급한다. 그러나 그 극화된 스토리의 중심에는 바로 사람이 주인공으로 서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견해는 편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의 배경이 어느 시대이던지, 어떤 상황이던지, 심지어 공상 과학의 배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인간들이 주인공으로 스토리를 전개하고 감정을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진정성 있으며 가장 현실성 있는 대화 장면들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영화가 자연스러운 실제 대화를 갖출 수 있는 이유는 영화의 목표가 인간을 교육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화는 특정 언어 교육을 위하여 제작된 교재가 아니므로,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간 사회를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투영하는 것이 목적인 문학 작품과 연극 작품과 다를 바 없다. 반면에 교재는 언어를 가르치기 위하여 어휘 통제를 하였고, 문법을 분류하여

학습에 용이하도록 짜임새 있게 구분하였으며, 각 대화 기능도 문법 지식과 어울리게 체계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다. 교과과정 속에서 효율적으로 적합할 수 있도록 잘 맞춰 놓았다. 영어 학습을 효율적으로 교육과정 내에서 진행하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교재의 사용은 필수일 것이다. 그러나 의사소통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목표인 현재 글로벌 세상에서 실제 의사소통의 모습을 교육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방식일 것이다.

교재는 언어지식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어휘, 문법, 표현, 기능 등을 학습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입력시키려하기 때문에 학습과정이 언어지식의 습득 그 자체로만 오도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언어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만 치중되어서 자연스런 대화의 모습들을 간과하게 된다. 토익 900점을 넘어도 회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사례들도 이를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는 교재가 갖고 있는 언어지식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능력의 기본 개념들인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 담화적 능력(discourse competence), 사회언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은 물론이고 인간의 심리, 감정, 종교, 문화, 세상 지식 등이 융합되어, 그야말로 언어 사용의 본연의 개념과 양상이 그대로 발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영화에 포함된 이런 요소들 중에서 화용적 면모를 살펴봄으로써 영화에 사용된 대화의 특징을 찾아보고 그 가치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영화가 시각 매체로써 보조적 역할만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편협한 시각을 버려야 한다. 영화는 촬영하여 보여주는 시각 매체라는 도구의 기능에 더하여, 인간을 투사하는 종합 예술이다. 영화의 이런 특성이 학습자들에게 엄청난 흥미와 동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학습을 촉진시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단순히 영화 속에 등장하는 표현과 어휘들만으로 영화를 사용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시계를 보는 단 한가지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영화는 수백 개의 기능과 편의성을 가진 스마트폰과 같은 도구의 역할과 그 안의 양질의 콘텐츠가 가진 가치로 영어 학습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많다. 영화에 드러난 화용적 양상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영화가 인위적으로 극화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인 언어 사용의 모습이 아니라는 관점을 다음 두 가지 비교 과정을 통해 반박하여 부정하고자 한다. 첫째는, 비슷한 화제를 다루는 영화의 장면과 교재의 대화를 비교하고, 둘째, 시나리오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촬영용 최종 대본(shooting scripts)과, 실제 영화의 대화 장면을 비교하여 제시하겠다.

다음은 처음 만나 알게 된 사람들이 직업을 묻는 대화 장면으로 교재에서 제시된 것을 먼저 살펴보겠다. Wilson과 Barnard(2007)의 *Fifty-fifty* 교재에 나오는 직업 묻는 표현을 배우는 장면이다.

그림 1. 교재의 대화 장면 예시

- 1 J: So, what do you do, Pablo?  
 2 P: I'm a taxi driver.  
 3 J: Oh, really? Do you like it?  
 4 P: Yes, I do, but driving in the city isn't easy.  
 5 J: How do you get to work?  
 6 P: I usually take the subway.

교재의 대화들은 언뜻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국내의 학습자들은 이미 영어학습의 초기부터 이런 종류의 대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쉽게 간파하기 힘들 것이다. 대화의 내용을 보지 않고 언어의 문법 형태와 어휘만 보기 때문이다. 위의 대화에서는 1과 2의 직업을 묻는 표현과 직업을 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교재가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교재 대화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문법 형태나 기능을 함께 제시하면서 가르치기 위한 대화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화자들 간의 관계 형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 수 없고, 대화의 상황(context)이 무엇인지 모른다. 게다가 대화자들 사이에 어떤 감정이 깔려 있는지 추측 불가능하고, 정보의 전달만 오고가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대화의 내용이 이어지지 못하고 뚝 끊어지게 된다. 위의 대화에서 4번까지는 다소 연관된 주제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5번부터 출근을 어떻게 하는지의 질문으로 넘어간다. 상대가 시내에서 운전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면, 그에 대한 동감을 표시하거나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반응이지만 이 대화에서는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영어 교재의 대화는 작가가 만든 것이 아니다. 물론 교재 제작자들도 평범한 대화자로서 항상 대화를 하지만, 제작의 초점이 문법형태와 어휘, 언어 기능의 언어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를 만드는 것이므로 자연스러운 대화양상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어차피 언어지식을 익히는 것이 영어 학습의 목표인데,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용한다는 것이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에서는 언어 사용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기 힘들기 때문에, 대화의 개념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미 대화의 개념이 그릇되게 인식되어 영어 학습의 목표가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다음은 영화 *The Devil wears Prada* 중에 직업을 묻는 표현이 나오는 장면이다.

## 그림 2. 영화의 대화 장면 예시

- 1 Andy: Hi.
- 2 Christian: Christian Thompson.
- 3 A: Christian Thompson? You're kidding. No, you're... you write for, like, every magazine I love. I actually, I reviewed your collection of essays for my college newspaper.
- 4 C: Did you mention my good looks and my killer charm?
- 5 A: No, but...
- 6 C: **What do you do?**
- 7 A: Oh, well... **I wanna work for somewhere like The New Yorker or Vanity Fair. I'm a writer too.**
- 8 C: Is that right?
- 9 A: Mm-hmm.
- 10 C: I should read your stuff. Why don't you send it over?
- 11 A: Oh, yeah? That would be... thank you. That would be great. But actually, right now, **I'm working as Miranda Priestly's assistant.**
- 12 C: **Oh, you're kidding. Well, that's too bad. That's... Whoa! You'll never survive Miranda.**
- 13 A: Excuse me?
- 14 C: Well, you seem nice, smart. You can't do that job.
- 15 A: Gotta go.
- 16 C: Okay. Well it was very, very nice to meet you, Miranda girl.

Andy는 원래 작가가 되고 싶지만, 지금은 Miranda라는 유명한 패션잡지 편집장 밑에서 비서로 일하며 꿈을 키우고 있다. 파티 장소에서 만난 유명 작가 Christian이 마침 예쁜 Andy에게 호의를 보이며 다가왔고 직업을 묻는다. 영화에서 직업을 묻는 표현에 대한 답이 교재에서처럼 전혀 간단하지 않다. Andy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영화에서는 하나하나의 표현들에 사정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이유가 있다. 단순히 Uhm, Whoa, Oh, Well 등의 filler가 들어 있고 발화의 양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 상황의 맥락 속에서 그 발화를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교재의 대화처럼 6개

의 짧은 발화로만 구성될 수가 없고, 화자의 사고와 감정이 들어 가야하기 때문에 한 번의 발화 기회에 여러 표현을 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분석하면서 그 상황이 일어나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는 내용과 의미가 아닌, 발화의 단순한 형식적 분석밖에 안 될 것이다.

대화의 내용을 좀 더 분석하면, 화용적 공통점을 끌어낼 수 있다. 3번 발화에서 'I reviewed your collection of essays for my college newspaper'라고 자신의 경험을 말했다. 이는 단순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대학시절부터 Christian의 열광독자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Christian은 놀라거나 고마워하거나 당연히 나와야할 반응 대신에 자신의 잘생긴 외모와 살인 매력에 대해서도 썼는지를 묻는다. 이 발화에는 Andy에 대한 남성적 관심과 더불어서 그 호감을 강하게 어필하고 싶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Andy의 답변을 기대하지도 않았으며, Andy의 발화를 막고 직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는 다고 추정할 수 있다. 두 발화 모두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보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나타난 문자 그대로의 해석 속에 숨겨놓았지만 알아차리기를 의도한 함축된 내용이 있는 것이다.

11번 발화에서 유명한 Miranda 비서로 일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Christian의 반응은 정상적이고 평범한 반응이 아니다. 누군가의 직업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옳지 않을 것이다. 12번 발화에서 정말 안됐다고 동정하며, 결코 Miranda를 버터내지 못할 것이라고 어이없는 반응을 하였다. 13번에서 Andy의 'Excuse me'는 실례합니다나 다시 얘기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다. 상대의 말에 어이없어서 그가 의도한 의미를 물으며 불쾌감을 살짝 드러내는 발화이다.

이런 발화를 대화 기능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과하기, 요청하기, 거절하기 등의 대화 기능도 역시 표현과 연결시켜놓은 형식적 분류 체계에 불과하다. 대화의 심층적 의미를 다루려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가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해놓은 또 다른 문법 같은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Excuse me'를 배우면서 '친교 기능의 대화시작'이나 '관심획득표지' 기능으로 암기하게 된다. 이 역시 대화의 참 의미를 오도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4번 발화에서 기분 상한 Andy를 풀어주고자 자신의 의도를 좀 더 설명하며 아부하듯이 얘기한다. Andy는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여서, 악마 같은 보스로 유명한 Miranda 밑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통 여성이라면 그 말에 넘어가서 대화를 지속하고 유명 작가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겠지만 Andy는 전혀 영향 받지 않는다. 'Gotta go'도 진짜 가야하는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지속의 의도가 전혀 없고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교재와 영화의 대화를 비교하였고, 영화의 대화가 더 현실성이 있다는 단순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영화의 대화가 실제 자연 발화 대화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영화 대화가 실제 대화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함축의미이다. 위 영화 대화에서 매 발화마다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화용적 공통점이다. 매 발화에 화자가 의도한 함축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사회생활 속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것 같은 업무대화(transactional communication)의 정보교류라는 일차적인 역할 외에 거의 모든 상황에서 함축의미를 포함하게 되어 있다. 사람간의 관계에 따라, 경험에 따라, 감정과 상황에 따라 사람은 함축의미를 삽입하여 의미를 전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언어의 형태적 의미와 함축의미가 일치할 때도 있지만 형태적 의미와 전혀 다를 때가 더 많다. 직업이 무엇이나는 형태 의미에 말 그대로 자신의 직업을 밝혀서 말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화자는 자신의 직업을 그대로 전달해서 말하고자 하는 함축의미를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대로 직업을 말하고 싶지 않다면 전달하고 싶은 함축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형태의 문장을 골라 쓰게 된다. 결국 화자가 갖고 있는 함축의미가 형태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교재의 만들어진 대화는 매 문장에 아무런 함축의미가 없다. 그러나 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감정이 어떤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이런 점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이유이다.

다음으로는 시나리오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촬영용 최종 대본과, 실제 영화에 촬영된 대화 장면을 비교 제시하여 영화 대화의 진정성을 고찰하겠다. 시나리오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촬영용 최종 대본이란 시나리오 작가들이 영화 제작을 위해 완성한 대본을 말하는 것으로 배우들이 자신이 맡은 등장인물로서 연기하기 위한 대본이다. 이 대본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암기하고 나서 배우들이 연기연습을 하고 촬영에 들어가면, 대본의 내용과 다르게 대사를 말하는 경우가 흔하다. 즉 촬영용 최종 대본과 완성된 영화의 대본은 다를 수밖에 없다. 물론 배우 개인의 암기 차이, 촬영하면서의 내용 수정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고, 대화의 큰 맥락과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영화의 대화가 극화된 대화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다는 편견에 대해서는 반박할 것이 많다.

다음은 영화 *Inception*의 한 부분이다. C는 Cobb라는 이름의 남자 주인공이고 E는 그의 동료 Eames이다. 왼쪽은 영화의 촬영 전 대본이고 오른쪽은 촬영 후 대본이며, 이 둘의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오른쪽 칸의 굵은 밑줄 글씨 부분은 원래 촬영 전 대본에 전혀 없었지만 배우들이 포함시킨 대사들이다. 왼쪽 작가 대본의 굵은 글씨는 촬영이 되면서 삭제된 부분들이다.

표 1. *Inception*의 촬영 전과 후 대본

SHOOTING SCRIPT		MOVIE SCRIPT
C1	Inception. Don't bother telling me it's impossible.	Inception. Now, <b>before</b> you bother telling me it's impossible...
E1	It's perfectly possible. Just bloody difficult.	<b>No</b> , it's perfectly possible. <b>It's</b> just bloody difficult. <b>Interesting</b> .
C2	That's what I keep saying to Arthur.	<b>So Arthur keeps telling me it can't be done.</b>
E2	Arthur? You're still working with that stick-in-the-mud?	Hmm. Arthur... You still <b>work</b> with that <b>stick and mind</b> ?
C3	He's a good point man.	He's good <b>at what he does, right?</b>
E3	The best. <b>But</b> he has no imagination. If you're going to perform inception, you need imagination.	Oh, <b>he's</b> the best. He has no imagination.
		<b>C4 Not like you.</b> <b>Listen</b> , If you're gonna perform inception. You need imagination.
C5	You've done it before?	<b>Let me ask you something.</b> Have you done it before?
E4	<b>Yeas and no.</b> We tried it. Got the idea in place, but it didn't take.	We tried it. <b>We</b> got the idea in place. But it didn't take.
C6	You didn't plant it deep enough?	You didn't plant it deep enough?
E5	It's not just about depth. You need the simplest version of the idea, the one that will grow naturally in the subject's mind. Subtle art.	<b>No</b> , it's not just about depth. You need the simplest version of the idea <b>in order for it... to</b> grow naturally in <b>your</b> subjects. <b>Mind is a</b> very subtle art.
C7	<b>That's why I'm here.</b>	<b>X</b>
E6	What's the idea you need to plant?	<b>So</b> what is this idea <b>that</b> you need to plant?
C8	We want the heir to a major corporation to break up his father's empire.	We <b>need</b> the heir <b>of</b> a major corporation to <b>dissolve</b> his father's empire.
E7	See, right there you've got various political motivations, antimonopolistic sentiment and so forth. But all that stuff's at the mercy of the subject's prejudice you have to go to the basic.	<b>Well, you</b> see right there, you <b>have</b> various political motivations... and anti-monopolistic sentiments and so forth. But all <b>of</b> that stuff, <b>it's, um... It's really</b> at the mercy of <b>your</b> subject's prejudice, <b>you see?</b> And <b>what</b> you have to <b>do is start with the absolute</b> basic.
C9	Which is?	Which is <b>what?</b>

의미를 강조해주는 No나 Well 같이 의미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는 채움말(fillers)들이 실제 촬영을 하면서 대사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언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E1에서 interesting 같은 표현들이 들어가서 감정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배우가 대부분을 다 암기하고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역할에 이입되기 때문에 줄거리와 상황 속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C2에서는 의미가 완전히 상반된 것을 알 수 있다. 작가의 대본에서는 내가 Arthur에게 계속 말하는 것이지만, 배우의 연기에서는 Arthur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다. 물론 Arthur라는 사람이 중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문법 구조 뿐만 아니라 의미가 완전히 반대임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배우의 미숙한 실수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배우가 머릿속에서 설정한 스토리의 전개가 배우의 연기에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사를 읊을 때에는 자연스러운 생성과정을 겪게 된다고 추정된다.

C4의 'Not like you'는 작가의 대본에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는 대사이다. E3의 대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대본인데도 불구하고 C4가 그의 대사를 중지시키고 말을 한다. 즉,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내용상 그 맥락에 맞게 자연스럽게 발화하게 되는 것이다. 상황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맥락에 맞추어 배우의 감정이 드러나고 자연적으로 분출된다. 또한 작가가 설정한 C7의 대사는 실제 연기에서 아예 빠져버렸다. 배우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상황에 몰입되어 연기하면서 내용 전개에 큰 역할을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나리오 작가가 만든 대화의 내용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창작된 것이지만 실제 연기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연스러운 발화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화의 대화는 예상보다 실제 대화만큼 감정적이고 즉각적이며, 다소 임의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변모하게 되는 원인은, 암기하지 못하는 배우의 실수도 아니고 과장연기의 탓도 아니다. 그 장면의 맥락 속에서, 배우는 자신의 역할에 몰입하게 되고 감정이입이 되어 그런 상황에서 발화자가 겪게 되는 것과 유사한 감정적 과정을 겪게 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 등장인물의 역할에 몰입하여 맥락에 맞는 함축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실제 자연 발생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과정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의 대화에 수학 같은 공식과 법칙이 얼마나 적용될 것이며, 사람의 머릿속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모든 인간이 대화에 적용하는 화용적 규칙성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설사 그런 규칙성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를 의심해 봐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마다 Grice(1989)의 대화격률(conversational maxims)을 준수하며 대화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어길 때도 많고 따르기도 한다. 예의를 지켜서 공손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상황에서 사람은 과감하게 그런 세상 규칙도 어길 때가 있다. 결국 함축의미가 대화에서 생성될 때에는 사람

이라는 유일무이한 규칙이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상황에 따라 맥락에 맞추어 대화에서 전달한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수학 규칙으로 아니면 과학적 논리로 풀어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 보다 더 큰 변수는 없고, 더 다양한 종류는 없다. 많은 사례에서 공통적 형질을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공식처럼 이 상황에 이런 말, 이 맥락에는 이런 대답 식으로 정형화될 수는 없다. 매 상황이 특이하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성격에 다양한 감정을 기반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대화에서 상황을 빼고는 각 발화의 정확한 의도를 전달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재의 대화에서는 내포된 의미가 있을 수가 없다. 상황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도 인지를 알 수가 없다. 화자가 말한 내용이 말 그대로의 의미 외에는 어떤 의도도 갖지 못한다.

다음으로는 영화 *She's the man*에서 개학 첫날 처음으로 기숙사에서 만나게 된 친구들 사이의 대화이다.

그림 3. 영화의 함축의미 예시

- |   |
|---|
| <p>1 Sebastian: Sebastian Hastings.<br/>         2 Duke: Duke Orsino. Ok. Ok. This is Andrew and Toby. They live next door.<br/>         3 Andrew: Yeah. Freshman dorm's that-a-way, twiglet.<br/>             Seriously, <b>how old are you?</b><br/>         4 Sebastian: <b>I skipped a couple grades<sup>2)</sup></b>. I'm brilliant.</p> |
|---|

위 대화에서 Andrew가 Sebastian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묻는다. 진짜로 나이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Sebastian은 남장을 한 여자라서 포레 남자들보다 키가 많이 작은 것이고, 그것을 모르고 남자라고만 알고 있는 남학생들은 키가 작은 것에 대해 의아해 할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놀리고자 하는 의도의 함축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답으로 Sebastian은 월반을 했다고 말한다. Andrew의 키를 묻는 함축 의미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위장을 숨기면서 체면을 살릴 수 있는 변명의 함축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나이를 묻는 표현에 무조건 몇 살이라는 숫자로 대답하는 것이 대화의 규칙이 아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상황과 맥락에 맞추어 자신이 의도한 뜻을 표현하는 것이 대화이다. 표면상으로 발화된 일차적인 뜻을 즉 말한 것을 그대로 이해하면서 사람은 그 안의 이차적인 함축 의미를 거의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말을 듣는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일차적인 뜻

2) 오류가 아니라 영화의 자연스러운 회화체 대사 그대로이다.

으로 혹은 이차적인 뜻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공식이나 규칙의 적용은 필요하지 않으며, 사람은 태어나서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는 동안 대화하는 능력을 이미 습득하고 있다.

따라서 영화의 대화는 자연발생 대화와 다름없이 사람의 실제 대화의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실제적인 대화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화용론적 특징이 바로 함축 의미라고 규명할 수 있겠다. 함축 의미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경향이 있다고 봐야 한다. 좋은 감정을 가질 때 발화 속에 좋은 함축 의미를 넣을 것이고, 대화를 회피하고 싶다면 그런 의미를 내포한 발화를 할 것이다. 생각과 감정이 없다면 함축 의미를 가질 수가 없고 어떤 의도를 전달할 수 없다.

영화의 대화는 이런 화자의 생각과 감정이 그 상황 속에서 발현되는 것을 보여준다. 스토리라는 강력한 끈이 각 장면과 대화와 등장인물 간에 일관성(coherence)을 부여해 주고 있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자연발생 대화처럼 화자가 들은 말의 함축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고 자신의 함축 의미를 전달하는 모습을 영화는 영상이라는 매체로 그대로 재현한다고 하겠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집단 및 자료

영화 대화의 특성이 기억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연구를 시행하였다. 서울 시내 4년제 대학의 교양선택 스크린 영어 강좌 2개 반을 이용하였다. 각 강좌는 정원 150명의 대형과목으로써 전 학년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고 전공도 다양하여 공과, 자연, 예체능, 인문, 사회, 경영 등 전체 계열의 학과가 다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영어실력도 토익 900점 이상의 상위 실력자들부터 토익을 본 적도 없거나 600점대의 초보자들이 골고루 섞여있고, 초보자들이 훨씬 더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전평가를 통해 두 집단이 동질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각 강좌를 실험집단( $n=145$ )과 비교집단( $n=146$ )으로 정하여, 한 학기 동안 강좌소개와 평가를 제외하고 12차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영화 '하이힐을 신은 여자(I don't know how she does it)'를 이용하여 영화와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영화는 사회생활에서 능력 있는 워킹맘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다루는 드라마로써 부부간의 대화, 직장에서의 대화 등 다양한 대화 상황과 함께, 가족의 실생활에서 쓰이는 루틴표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수한 영어 학습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화의 내용상 대화 함축의미가 드러난 장면이 많아서 본 연구의 취지에 맞는 영어 학습 자료라고 하겠다.

### 3.2. 절차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수업 방식의 차이는 대화 장면에서 함축의미가 많이 드러난 장면들을 선정하여 명시적으로(explicitly) 중점 지도한 점이다. 두 집단에게 지도한 표현들과 문법 사항들은 똑같았으나 실험집단에는 대화의 함축의미를 추측하고 적어보고 나서 영화의 함축의미를 비교하는 활동을 주도적으로 행하였다. 비교집단에서는 영화 장면 듣기, 빈칸채우기 활동, 표현 학습, 소리내어 읽기(reading aloud), 역할극(role play)의 순서로 종합적인 지도를 하였다. 실험집단에서는 똑같은 순서대로 지도하였으나 빈칸채우기 대신에, 함축의미 초점활동을 부가시켜서 명시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부분의 시간 배정이 가장 많았으며 여러 학습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비교집단에서는 빈칸채우기 활동에서 언어적인 정보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같은 표현들을 배웠다고 해도 함축의미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비교집단에서 변인이 완벽하게 통제될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듣고 빈칸 채우기를 몇 회 한 후, 문법과 어휘 설명에 주력했으므로 최대한 통제하려고 하였다.

함축의미 초점활동은 먼저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 대화 장면을 한글로 제시하였다. 다양한 실력의 학습자들이 분포되는 교양선택 강좌이므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어를 이용하였다. 대본에서 함축의미가 포함된 대사들을 빈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4. 함축의미 초점활동의 예시

(상사인 Kate가 너무 머리를 심하게 긁자)  
 Momo: 빗 드려요?  
 Kate: 뭐, \_\_\_\_\_.

위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시받은 피험자들은 5명으로 구성된 조별로 빈칸에 적절한 대화표현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였다.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이해를 도왔다. 물론 국어로 답을 추측하도록 하였으며, 조원들의 공통 의견으로 하나의 표현만 정하도록 하였다. 가급적 많은 조들의 답변을 들어보고 피험자들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해당 장면을 영화로 보여주고 영어로 된 대본을 다시 제시하여 피험자들이 고민했던 빈칸 부분의 추측 표현과 영화 속의 표현(Kate: What, I'm a little itchy. Is that a crime?)이 의미적으로 비교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피험자들의 추측 표현은 영화 속의 표현과 많이 달랐으며 이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으로 문화적인 설명이나 사고의 차이를 해설해 주었다. 예를 들어, 다음 장면에서 학습자들은 많은 다양한 답변을 추측하였다.

그림 5. 함축의미 대화 예시

Richard: 그렇지만 잭이 번스가 그걸 할 거라고 그랬다며. 그가 가게 해.  
 Kate: 에이, 리차드. 난 번스가 이 일을 가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당신도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열심히 해왔는지 알잖아. 그렇지만 어떻게 어디서 발표를 해야 하는지를 내가 정할 수는 없잖아. \_\_\_\_\_. 난 모든 것을 준비해 온 거라고, 바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이야.

Richard: But Jack said Bunce would do it. Let him go.

Kate: Come on, Richard. I can't let Bunce take this. You know how hard I've been working on it. But I can't control how and where we pitch it. It's not my fault. I have... I have planned everything so this exact thing would not happen.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외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시택에 방문하여 막 저녁식사를 마친 후에 케이트는 상사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게 된다. 몇 달간 준비해 온 프로젝트의 결정적인 프레젠테이션이 갑자기 사장의 스케줄 변경으로 내일로 앞당겨진 것이다. 상사나 남편 모두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된다는 제안을 하는 데도, 케이트는 자신이 완성하기를 바라며 남편을 설득한다. 이런 상황에서 피험자들은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으로 '미안해', '이번만 봐주세요',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요' 등등의 표현들을 추측하였다. 영어권의 문화와 사고방식에서 사과보다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It's not my fault)'라는 표현이 적절하고 자주 사용된다는 설명을 하였다. 물론 피험자들의 추측 표현들도 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주지시켰으며, 간혹 많은 피험자들의 추측 표현이 맞기도 하였다.

실험집단에게 함축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했기 때문에 영화를 볼 때에는 항상 국어 자막을 이용하였다. 반면 비교집단은 영화 장면을 보는 첫 번째 단계에서만 국어 자막을 이용하고 다음부터는 무자막으로 반복 시청하였다. 영화의 상영 횟수는 각 장면 당 2~3회로 제한하였고, 국어 자막이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교정하여 피험자들에게 교수하였다. 국어 자막이 의미에 치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기억력의 효과에 더 영향을 줄 수도 있겠으나, 단순히 의미의 기억이 아니라 영어 표현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평가지에 실험 집단의 몇몇 피험자들은 '상황과 의미, 누가 말했는지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영어가 기억이 안나요ㅠㅈㅠ', '이거 케이트가 한 말인데...'라고 쓴 답안도 있었다.

함축의미가 드러난 대화표현들 중에는 두 사람간의 대화가 주류를 이루지만, 나레이션 부분들도 많았다. 한 사람이 청중을 향해 발화하는 나레이션 부분에서는 담화적으로 비유나 은

유, 비교, 예시의 표현들이 많이 이용되어서, 함축의미에 초점을 맞추기가 더욱 수월하고 피험자들이 이해하기 쉬웠다. 따라서 아래 예시와 같은 나레이션 부분들도 많이 실험집단 수업에 교수하였다.

그림 6. 나레이션 예시

알리슨: 한 남자가 아이 때문에 사무실을 떠나야 한다고 발표하면, 그 사람은 이타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을 주고 아버지다운 롤 모델로 환호를 받죠. 여자가 아파서 사무실을 떠날 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녀는 계획도 못 세우고, 무책임하고, 뭔가 업무에 몰입도 못하는 사람으로 혹평을 받게 되요.

-----

Allison: A man announces that he's going to leave the office to be with a child and he is hailed as a selfless, doting, paternal role model. A woman announces that she's going to leave the office to be with a child on its sick bed and she is damned as disorganized, irresponsible and showing insufficient commitment.

위 발화는 워킹맘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애가 아파서 조기 퇴근해야 하는 상황을 희화적으로 남녀 간에 비교하였다. 이렇게 긴 발화일 때에는, 문장이 여러 개이고 길이가 길뿐만 아니라 화자 간에 앞에 제시된 맥락이나 상황이 제공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함축의미를 명시해 줄 수 있는 어휘나 구문을 빈칸으로 하여 내용을 유도하며 설명하고, 함축의미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였다.

#### 4. 평가 결과 및 분석

영화 대화의 특성이 기억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를 통해 피험자들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사전과 사후 평가의 문항수는 각각 40개로, 학습한 표현을 국어로 제시하면, 영어로 답을 적는 주관식 문항이다. 사전 평가는 수업 2주차에 시행한 것으로써 사후와 비슷한 형태의 주관식 문제이며 사후 평가의 난이도 보다 훨씬 쉽게 출제하였다. 2주차의 수업이 끝난 후에 치른 평가였기 때문에 진도가 상당히 적은 양에서 문제를 내었고, 문제의 표현들도 상당히 짧은 표현들이 많았다. 사전 평가가 실험 첫날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두 집단의 동질성을 보여주고 사후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



어 보인다. 기말 문항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가 학습했던 표현들이고, 그 표현들 중에는 실험집단에게 명시적 함축의미 지도를 하지 않은 표현들도 많이 속해있다. 문항 자체는 영어로 쓰는 문항이기 때문에, 언어적 초점 지도를 받은 비교집단에 더 유리할 수도 있으나, 실험집단 피험자들이 함축의미로 지도하지 않은 문장도 내용과 의미에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을 보여서 좋은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기말고사로 치룬 사후 평가는 학습했던 표현들을 잘 인식하고 기억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가 되어야 하므로, 자유 영작을 허용하지 않고 영화의 표현을 그대로 적도록 하였다. 자유 영작으로 쓴 문제는 모두 틀리게 하였으며, 암기한 증거가 보이는, 즉 학습한 영화의 표현을 적으려고 했으나 완성을 못했거나 부분적으로 답안을 적은 경우에는 0.5점으로 부분점수를 주었다. 각각 40개의 문항에서 맞은 개수를 산정하여 평균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사전 평가, 사후 평가의 집단별 차이

	비교집단 n=146		실험집단 n=145		t	p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전평가	20.14	7.15	18.53	10.79	1.505	.134
사후평가	21.20	9.94	27.31	5.95	-6.357	.000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 검사 결과, 실험집단의 평균은 18.53(*SD* 10.79)로 비교집단의 평균 20.14(*SD* 7.15)와 1.61의 평균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t*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실험 처치 시행 전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영어 능력에서 차이가 없는 집단임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 실험 처치 후, 각 집단에 시행한 사후 평가 결과, 실험 집단의 평균은 27.31(*SD* 5.95)로 비교집단의 평균 21.20(*SD* 9.94)과 6.11의 평균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t* 검증한 결과  $t=-6.357$ 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집단의 피험자 수가 많은 수업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영화의 대화특성을 강조해서 지도했을 때의 기억력 효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실험집단의 사후 평가에서 표준편차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보면 실험 처치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놀라운 큰 효과를 보여준 데는 언어의 표현적 설명, 언어지식 보다는 대화의 내용에 집중하여 명시적으로 설명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물론 학습자들의 추측 활동도 이에 못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피험자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조활동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았던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소정의 시간이

흐른 후에 두 번째 사후평가를 시행하여 비교해서, 장기기억력의 효과와 연구의 타당성을 더 높이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성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후행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영화 자체가 영상과 소리의 감각이 이용되고 맥락이 제시되는 매체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기억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비교집단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영화를 기존의 방법처럼 이용했을 때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영화의 효과를 살리기 보다는 학습자들인 교수가 무의식적으로 언어에 초점을 맞춰나가기 때문이다. 언어 지식에만 중점을 두고 교수를 하다보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영화의 스토리나 영상의 효과를 이용하지도 못하고 영화를 한두 번 보여주고 수업이 마무리되고 만다. 따라서 영화에서 보여주는 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맥락과 대화내용이 주는 효과를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 함축의미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5. 결론

영화의 대화는 실제 대화와 다르다는 주장의 진위를 떠나서 영화의 대화가 가진 함축의미의 특성이 기억력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영화와 미드의 화용론적 양상을 강조함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교육 현장에서 단순히 언어적 지식과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 더하여 화용적 능력에 대한 자각력을 높이고(김대진, 2006; Kwon, 2004), 대화 감각을 살려서 의미 있는(meaningful) 학습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영화와 미드에는 실용적 영어 표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화용적 가치가 있어서 실제 대화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런 함축 의미의 양태를 교수했을 때 기억력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언어지식을 익히는 것과 함께 의사소통을 하고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나간다는 것이어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떠나서 따로 습득되어서는 안된다. 본 연구를 통해 화용적 의미의 교수가 언어습득에 가치가 있으며, 화용적 의미를 가르치는 것은 언어에서 사람, 관계, 사회라는 대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언어지식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언어지식만을 따로 익히지 말고 내용, 스토리, 사람, 사회와의 개연성을 맺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몇 개의 표현을 기억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고 해서 언어습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귀결에 타당성이 부족할 수 있다.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어휘와 문법, 표현 등 많은 언어지식을 머릿속에 입력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영어 학습자들이 만족스런 점수를 얻지 못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영어 학습을 중도

에 포기하기도 한다. 학습자들에게는 암기하는 학습의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영어 학습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화용적 의미의 강조가 학습자들이 언어 표현을 기억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면, 교육현장에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대진. (2006). 영어 원어민의 화용인식을 의도적 교습을 통해 가르칠 수 있는가? *언어학*, 14(1), 157-181.
- 김소연. (2009). 영화 담화에 나타난 통일성과 결합성. *영상영어교육*, 10(2), 29-49.
- 김혜정. (2009). 영화 듣기 교재 개발에 대한 제언: 듣기 전략을 중심으로. *영상영어교육*, 10(1), 99-118.
- 노윤아. (2008). 영화를 활용한 읽기활동 연구. *영상영어교육*, 9(2), 41-64.
- 박영. (2007). 대규모 교양강좌로서의 스크린영어 교수. *영상영어교육*, 8(2), 29-53.
- 서성식. (2007). 영상 매체를 이용한 수업의 장점과 한계. *영상영어교육*, 8(2), 153-166.
- 서성식. (2009). 영화 *늑대와 춤에*에 나타난 전복성 분석. *영상영어교육*, 10(2), 79-99.
- 성지희. (2008). 학습자들의 말하기능력신장을 위한 영화 클립과 창작 드라마 활용. *영상영어교육*, 9(1), 101-120.
- 유영아. (2000). 영상영어의 오늘과 내일: 시중조사를 중심으로. *영상영어교육*, 1, 97-126.
- 유영아. (2007). 영화의 루틴 대조분석을 통한 선(先) 출력 활동 효과. *영상영어교육*, 8(2), 83-106.
- 윤재웅. (2007). 영어 수업을 위한 영화 속 영시의 활용 방안. *영상영어교육*, 8(2), 107-126.
- 이자원. (2000). 영화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영상영어교육*, 1, 47-64.
- 장혜진. (2006). 영화를 이용한 작문수업 활성화 방안: *스쿨오브락과 퀴카로 살아남는 법*을 이용해서. *영상영어교육*, 7(1), 71-94.
- 정상욱. (2007). 영화 속 미국 역사를 활용한 영어 쓰기 교재 개발. *영상영어교육*, 9(1), 127-151.
- Benz, A. Jasinskaja, K., & Salfner, F. (2013). Implicature and discourse structure: An introduction, *Lingua*, 132, 1-12.
- Burton, D. (1980). *Dialogue and discours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Bowles, H. (2010). *Storytelling and drama: Exploring narrative episodes in play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Breheny, R., Katsos, N., & Williams, J. (2006). Are generalized scalar implicatures generated by default? An on-line investigation into the role of context in

- generating pragmatic inferences. *Cognition*, 100(3), 434-463.
- Chierchia, G. (2004) Scalar implicatures, polarity phenomena, and the syntax/pragmatics interface. In A. Belletti (Ed.), *Structures and beyond*. (pp. 39-10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ickman, A. (Director). (2006). *She's the man* [Motion Picture]. United States: Dreamworks.
- Frankel, D. (Director), & Finerman, W. (Producer). (2006). *The devil wears Prada* [Motion Picture]. United States: 20<sup>th</sup> Century Fox.
- Grice, H. P. (1989). *Studies in the way of wor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erman, V. (1995). *Dramatic discourse: Dialogue as interaction in plays*. London: Routledge.
- Kim, Hye-Jung & Im, Mi-Jin. (2012). Cognitive awareness of pragmatic failure based on Modern Family. *STEM Journal*, 13(3), 1-16.
- Kim, Kyu-hyun. (2011). Applying conversation analysis: Script-based interactions in movies as a domain of inquiry. *STEM Journal*, 12(2), 23-50.
- Kwon, J. (2004). Expressing refusals in Korean and in American English. *Multilingua*, 23, 339-364.
- Levinson, S. C.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vinson, S. C. (2000). *Presumptive Meanings: The theory of 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Cambridge: MIT Press.
- McGrath, D. (2011). *I don't know how she does it*. [Motion Picture]. United States: The Weinstein Company.
- Nolan, C. (Director). (2010). *Inception* [Motion Picture]. United States: Warner Brothers Pictures.
- Nolan, C. *Inception shooting script*. Retrieved from <http://www.raindance.org/site/scripts/Inception.pdf>
- Wilson, D., & Sperber, D. (2004). Relevance theory. In L. Horn & G. Warden (Eds.), *The handbook of pragmatics* (pp. 607-631).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Wilson, W & Barnard, R. (2007). *Fifty-fifty*. Hong-Kong: Longman.

**유도형**

136-702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화: (02)910-5479

이메일: dohyryu@kookmin.ac.kr

Received on January 31, 2015

Revised version received on March 7, 2015

Accepted on March 17, 2015